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금리 인하, 연착륙 가능성 크게 높였다
- WSJ: 앞으로 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까?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올해 5월 이래 최저치... 견고한 노동 시장

[미국 금융]

- Bloomberg: S&P500, 연착륙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뉴욕시]

- Bloomberg: 654억불 들여 그랜드 센트럴역과 지하철 보수
- Bloomberg: 뉴욕시, 거리의 '쥐 억제' 성공 서밋 개최한다

[물류]

- WSJ: 미 수입업체들 항만 파업 대비해 상품 조기에 들여와

[주택]

- Reuters: 8월 기준 주택 판매 감소... 가격 여전히 높아

[원자재]

- WSJ: 미국 원유 비축량 감소
- Bloomberg: 구리, 금리 인하로 두 달 만에 최고치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T-Mobile과 OpenAI 협력 계약 체결
- Bloomberg: 아마존,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AI 출시
- CNNBusiness: 허쉬, 캔디를 에너지 음료와 단백질 파우더로 바꾼다
- CNNBusiness: 알래스카 항공, 19억달러 규모 하와이완 항공 인수 완료
- CNNBusiness: 아마존, 직원에게 무료 프라임 멤버십 제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WSJ: The Fed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Odds of a Soft Landing
연준 금리 인하, 연착륙 가능성 크게 높였다**

- 연준이 어제 수요일 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우려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 미국은 이제 낮은 인플레이, 저실업률, 안정된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경제 정상화 또는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다.
-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번 금리 인하로 일 년 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 더 정상적인 경제 상황과 금리 수준이 될 수도 있다.
- 한편, 어제 연준 위원들은 내년도 핵심 인플레이가 긍정적인 수준인 2.3%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WSJ: When Is the Next Fed Meeting? And Where Do Interest Rates Go From Here?**앞으로 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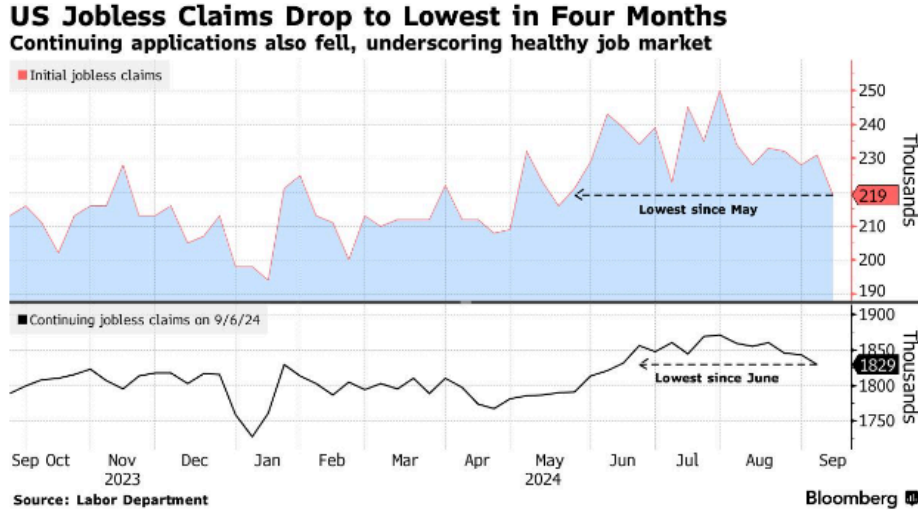
- 어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에 따르면 연준의 중앙값 예상치는 올해 말까지 금리는 4.4%로 낮아지고, 내년 말에는 3.4%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분기별 전망에서 연준 관리 과반수가 약간 넘는 연준 관리들은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적어도 0.25%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런데 CME FedWatch에 따르면 마켓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예상하고 있다. 날짜는 연준의 향후 금리 발표 일자다.
- 11월 7일: 트레이더들은 이날 0.25%p 떨어진 4.5%~4.75% 범위가 될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으며, 0.5%p 인하될 가능성은 37%로 보고 있다.
- 12월 18일: 4%~4.25%가 될 가능성을 거의 균등하게 보고 있으며, 0.25%p나 그 미만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Fall to Lowest Since May in Solid Labor Market**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올해 5월 이래 최저치... 견고한 노동 시장**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채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성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지난 9월 14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2천건이 증가한 21만9천건으로 나타났다.
- 지속적인 청구 건수 역시 떨어져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변동성을 줄여 검토하는 4주 평균치의 경우 22만7천건으로 지난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P 500 Hits All-Time High on Soft-Landing Hopes: Markets Wrap

S&P500, 연착륙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 연준이 소프트랜딩을 위한 금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트레이더들이 베팅하면서 증시는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다.
- S&P500은 1.6% 상승 중이며, 나스닥 100지수는 2.5% 이상에서 오늘 목요일 오전 거래되고 있다. Russell 2000도 7번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도 5% 점프하고 있다. 국채는 달러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한마디로 트레이더들은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는 과감하면서도 경제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S&P500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20%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City's Transit System Plans \$65.4 Billion of Upgrades for Grand Central, Subways

654억불 들여 그랜드 센트럴역과 지하철 보수

-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와 기차를 운영하는 MTA는 향후 5년간 654억불을 투입해 수천 대의 전철 차량을 구입하고, 전력 변전소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랜드 센트럴역을 비롯한 지하철역과 선로 등을 개보수 할 예정이다.
- 그러나 예산 확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예산의 절반가량인 334억불은 잠재적으로 재원이 없는 상태이며, 뉴욕주지사가 맨해튼 통행 혼잡세 시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주 의원들은 현재의 자본 예산안에서 150억불의 적자를 메꿔야 할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YC to Host 'Rat Summit' as Mayor Says His Policies Curbed Pests

뉴욕시, 거리의 '쥐 억제' 성공 서밋 개최한다

- 뉴욕시장 데릭 아담스는 뉴욕시가 '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면서 미 전역의 정책 지도자들이 자신의 성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이번 주에 '전국 도시 쥐 서밋(National Urban Rat Summit)' 행사를 가져 미 주요 지역의 설치류 및 쥐 통제 전문가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 뉴욕시는 작년에 '쥐 박멸'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올해 7월 쓰레기를 길거리 플라스틱 백에 넣지 말고 컨테이너에 넣도록 의무화하고, 공원에선 설치류가 식품 쓰레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U.S. Importers Are Pulling in Goods Early as Possible Port Strike Draws Clo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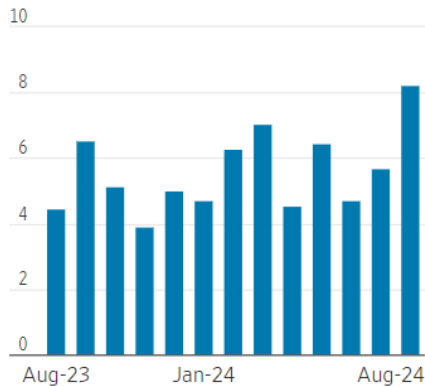
미 수입업체들 항만 파업 대비해 상품 조기에 들여와

- 미 주요 항만 노동자들이 앞으로 2주 내에 주요 항만 운영을 제한시키고 미 경제에 부담을 주는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 수입업체들은 미리 전자제품이나 홀리데이 상품, 산업체들을 서둘러 들여오고 있다.
- 이들 업체들은 홀리데이 시즌 상품들을 예년에 비해 빨리 들여오고 있다. 8월에 수입업체들은 거의 2백40만개의 컨테이너(20피트 규모)를 들여왔는데, 이는 작년 동월에 비해 21%가 증가했고, 팬데믹이 피크였던 지

난 2022년 5월 이래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큰 수입량이라고 전국소매업체연합(NRF) Global Port Tracker는 밝혔다.

Growing Delays

Average monthly 'dwell time,' or days spent waiting for rail transport, for imports into the ports of Los Angeles and Long Beach



Source: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

WSJ 기사

[주택]

Reuters: US existing home sales drop in August; supply improves 8월 기존 주택 판매 감소... 가격 여전히 높아

- 주택 공급은 회복되지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미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감소했다.
- 8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2.5% 줄어 계절 조정치로 연율 3백86만채를 기록했다고 전국부동산협회는 오늘 목요일 밝혔다. 로이터 전문가 집계 예상치는 3백90만채였다.
- 미 주택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재판매는 8월의 경우 연간 베이스로 비교했을 때 4.2% 하락했다. 중간치 기존 주택 가격은 작년 동월에 비해 3.1% 증가한 41만6천7백불로 역대 8월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주택 가격은 미 전역에서 상승했다.

Reuter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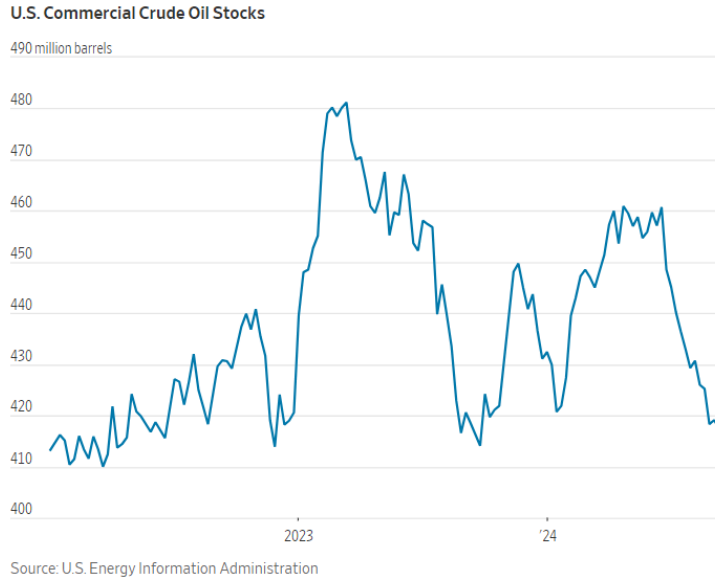
[원자재]

WSJ: U.S. Crude Oil Stockpiles Fall in Week Ended Sept. 13 미국 원유 비축량 감소

- 연방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한 반면,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증가했다.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160만배럴 감소한 4억1천750만배럴을 기록했다. 5년 평균보다 약 4% 낮은 수준이다. 전략 석유 비축량은 65만5천배럴 증가한 3억8천60만배럴을 기록했다.

- 원유 재고가 감소한 이유는 생산과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생산량은 하루 10만배럴 감소한 1천320만 배럴이, 수입량은 하루 54만5천배럴 감소한 630만배럴이 감소했다. 지난주 허리케인 프란신 때문에 멕시코만에서 일부 생산이 중단됐었다.
- 휘발유 재고는 6만9천배럴 증가한 2억2천160만 배럴을 기록했다. 증류유 재고는 12만5천배럴 증가한 1억2천510만배럴로 평균보다 9%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WSJ 기사

Bloomberg: Copper Notches Two-Month High On Powell's Half-Point Rate Cut

구리, 금리 인하로 두 달 만에 최고치

- 7월 중반 이후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 시간 오후 2시 26분까지 0.8% 상승한 톤당 9,477달러를 기록했다. 연준이 미국의 성장과 노동시장 방어를 위해 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금속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 연준이 인플레이 억제에 집중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속 시장은 역풍을 맞고 있었다. Everbright Futures Co.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미국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구리 펀더멘탈(fundamentals)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한 달 동안 상하이 선물거래소 창고의 구리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중국 금속 시장도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Mobile Strikes Deal With OpenAI
T-Mobile과 OpenAI 협력 계약 체결

- T-Mobile과 OpenAI가 협력해 통신 회사의 고객 확보와 유지를 위해 설계된 AI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IntentCX라는 새로운 플랫폼은 T-Life 앱을 통해 수백만 명의 T-Mobile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T-Mobile은 IntentCX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상담원에게 전화해야 했던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통신사에게 가입 고객을 유지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T-Mobile 최고경영자 Mike Sievert는 “고객들이 떠난 이유를 데이터로 남겼다. AI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IntentCX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의 세부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고객 데이터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AI의 CEO Sam Altman은 “T-Mobile 고객 데이터로 T-Mobile과의 맞춤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OpenAI 모델을 개선하는데 그 데이터가 쓰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Amazon Launches AI Assistant to Help Online Merchants Prosper
아마존,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AI 출시

- 아마존이 온라인 판매자의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 설계된 AI를 출시했다. Project Amelia라 이름 붙인 이 AI는 연말 쇼핑 시즌 준비부터 상품 목록 제안까지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아마존은 Amelia가 온라인 판매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 부사장 Dharmesh Mehta는 “다음 달 중에 모든 미국 판매자에게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다른 국가에도 출시하고, 다른 언어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ershey is turning its candy into energy drinks and protein powders with C4

허쉬, 캔디를 에너지 음료와 단백질 파우더로 바꾼다

- 허쉬는 달콤한 과자를 파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쉬의 이번 최신 제품은 다이어트를 위한 제품이다. 허쉬의 인기 사탕의 맛이 나는 단백질 파우더와 에너지 음료를 출시했다.
- 허쉬는 인기 있는 보충제 브랜드 C4 Energy와 계약을 체결했다. 허쉬의 밀크초콜릿과 Reese의 땅콩버터 맛 초콜릿은 곧 단백질 파우더로 판매될 예정이다. Jolly Rancher의 사탕은 에너지 음료로 바뀔 예정이다.
- C4의 모회사 Nutrabolt의 CEO Doss Cunningham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C4는 이미 Skittles, Starburst, Popsicle 같은 과자 맛 에너지 음료로 성공한 적이 있다.

CNNBusiness 기사

CNNBusiness: Alaska Airlines completes \$1.9 billion acquisition of Hawaiian

알래스카 항공, 19억달러 규모 하와이완 항공 인수 완료

- 수요일, 알래스카 항공이 연방 교통부와 합의에 도달해 19억 달러 규모의 하와이완 항공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하와이완 항공의 노선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채택하기로 했다.
- 교통부는 알래스카 항공과 하와이완 항공이 비행기 이용 보상의 가치를 보장하고, 하와이-미국 간 주요 노선에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고, 호놀룰루 공항에 경쟁을 보장하고,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 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알래스카 항공의 CEO Ben Minicucci는 이번 인수로 3년 동안 최소 2억3천500만달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CNNBusiness: Amazon workers are getting free Prime memberships

아마존, 직원에게 무료 프라임 멤버십 제공

- 아마존이 80만 명 이상의 창고 및 운송 직원의 임금을 시간당 최소 1.50달러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평균 초급 임금은 시간당 22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연간 139달러 상당의 프라임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아마존의 이번 결정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물류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UPS, 월마트, 타겟 같은 경쟁업체들도 창고 근로

자의 임금을 인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운송 및 창고 근로자의 8월 시간 당 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22% 상승한 30.79달러이다.

- 아마존은 연중 가장 바쁜 온라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다. Deloit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매출이 최대 3.3%, 온라인 매출은 최대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美 금리 빅컷 이후 달러가치 '출렁'...亞洲 동반 상승
日닛케이 2.13% 올라...코스피, '반도체 약재' 속 강보합 마감
美주가지수 선물 1%대 오름세...비트코인 6만2천달러선 회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시작하면서도 향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19일(이하 현지시간) 달러 가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 주가지수는 일제히 올랐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1%대 상승 중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